선진국 해양안전교육 시스템 연구 및 영상·교재 개발

(부처협업과정)

2019. 12.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차 례

Ⅰ. 서론 ····· 2

1. 국외훈련 개요 ····· 2

2. 훈련기관 개요 ····· 3

3. 요약본 ····· 6

Ⅱ. 본론 ····· 8

1. 훈련의 배경과 목적 ····· 8

2. 왕립 인명구조협회(RLSS) ····· 11

3. 영국 경비대(MCA) ····· 21

4. 왕립 인명구조선협회 대학(RNLI COLLEGE) ····· 25

Ⅲ. 결론(제언) ····· 27

Ⅰ. 서론

1.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영국

2. 훈련기관명

기간	훈련기관
10.31.~11.6. (7일)	왕립 인명구조협회 (RLSS : Royal Life Saving Society)
11.7. (1일)	영국 해안경비대 (MCA : Maritime and Coast guard Agency)
11.8. (1일)	왕립 구조선협회 대학 (RNLI COLLEGE : Royal National Lifeboat Institution COLLEGE)

3. 훈련분야: 선진국 해양안전교육 시스템 연구 및 영상·교재 개발

4. 훈련기간: ’19. 10. 30. ~ 11. 10. (12일간)

2. 훈련기관 개요

1. 왕립 인명구조협회(RLSS;Royal Life Saving Society)

명 칭 (영어/한국어) ※현지어 있을 경우 기재	RLSS (왕립 인명구조협회)	훈련기관 성격	자선단체
소 재 지	Red Hill House, 227 London Road, Worcester, WR5 2JG ※ 홈페이지 주소 : https://rlss.org.uk		
설립목적	-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매년 약 700명의 사람들이 익사하고 이는 화재나 사이클링 사고보다 더 많은 수 이다 - RLSS는 1891년 구명 협회를 모태로 1900년대 초 왕실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영국의 대표적인 익사사고 예방 단체		
대표적 프로그램	Rookie Lifeguard, Survive and Save, Water Smart Award, Save a Life Series, Water Rescue Equipment Training, Pool to Pond, William Henry Reward Programme, Life Support, Life Support, Rookie Festivals, Duke of Edinburgh, Welsh Baccalaureate, Community Instructor, Become a Lifesaving Instructor or Tutor 등		
주요인사 인적사항	Robert Gofton, Chief Executive Officer - 前 One World Events의 운영 및 비즈니스 개발 담당 이사 - 前 CHICKS, Falmouth and Exeter 학생 연합 최고 경영자 - 現 정신건강 단체 Step One 신탁 관리자		
주요기능 및 연구분야	**(주요기능)** 수상안전과 훈련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활용하여 익사 방지 및 최고의 인명 구조 훈련인 NPLQ(National Pool LifeGuard Qualification, NPLQ)를 비롯한 다양한 직업 자격과 불필요한 인명 손실을 방지 **(연구분야)** RLSS는 영국의 대표적인 익수사고 예방 단체로 이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해양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 및 그 간의 시행착오 등 한국형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다양한 자료 수집		
교섭창구	(담당자명) Aaron Dhanda		
	(전화) 0300-323-0096		
	(e-메일) AaronDhanda@rlss.org.uk		
훈 련 소요경비	없음		

2. 영국 해안경비대(MCA;Maritime and Coast guard Agency)

명 칭 (영어/한국어) ※현지어 있을 경우 기재	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MCA (해안경비대)	훈련기관 성격	정부기관
소 재 지	MCA Headquarters, Spring Place, 105 Commercial Road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maritime-and-coastguard-agency		
설립목적	- 여왕 폐하의 해안 경비대를 통한 수색 및 구조와 예방 활동 - 해양 관청의 네트워크를 통한 선적 통제의 항구와 깃발 관리 - 국제 해양 기구를 통한 선적에 대한 국제 표준과 정책의 개발		
조 직	- 1,050명의 직원과 3,500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 - 본부는 사우샘프턴에 있고 영국 해안 주변에 사무실과 조정 센터가 있다.		
주요인사 인적사항	Chief Executive, MCA : Brian Johnson 캠브릿지 대학교에서 화학 공학을 졸업하고 ICI에서 15년간 연구, 기술 개발, 현장 생산 관리 및 사업 구조 조정 지도자로 근무. 90년대 초 루이지애나에서 일하면서 오존층에 친화적인 냉매를 만드는 세계 최초의 산업 규모 공장의 설계와 시운전을 주도.		
주요기능 및 연구분야	**(주요기능)** 해상보안청(MCA)은 영국의 행정기관으로 해상에서의 인명 손실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국과 국제 해양법 및 안전 정책 시행 업무 담당 **(연구분야)** 영국의 대표적인 해양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의 해양사고 예방과 사고 시 생존율 향상을 위해 수행 중인 업무와 그 시스템에 대한 연구		
교섭창구	(담당자명) Kirsten Pointer		
	(전화) 0203-81-72387		
	(e-메일) kirsten.pointer@mcga.gov.uk		
훈 련 소요경비	없음		

3. 왕립 구조선협회 대학(RNLI COLLEGE;Royal National Lifeboat Institution COLLEGE)

명 칭 (영어/한국어) ※현지어 있을 경우 기재	Royal National Lifeboat Institution College (왕립 구조선협회 대학)	훈련기관 성격	자선단체
소 재 지	West Quay Road, Poole, Dorset, BH15 1HZ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rnli.org.uk		
설립목적	- 왕립 구조선협회는 인명구조와 해상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칙허장(Royal Charter,법적근거가 됨)에 의해 조직된 기관 - 구조선협회 대학은 왕립 구조선협회 회원으로 구조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구조 역량 강화 훈련 실시를 위해 설립 - 해상 및 해수욕장에서의 인명 구조 및 안전 증진		
조 직	- 조직: 6개 지부, 총236개 구조정 스테이션(템스강 인근 4개 포함) - 인력: RNLI 회원 총 40,000여명 ※ 구조정 승무원: 4,600명 / 해안 조력자: 2,000명 / 기부금 조성자: 35,000명 - 장비: 구조정 약 444척(구조스테이션 332척, 예비정 112개 보유)		
주요인사 인적사항	Dungeness Lifeboat Coxswain : Stuart Adams(베테랑) - 전천후 구조선을 책임지는 RNLI의 주요 키잡이 - 17살에 RNLI 가입, 1977년 선원에 합류 - 2000년까지 구명보트 자원봉사자, 1997년 이후 키잡이		
주요기능 및 연구분야	**(주요기능)** 영국해안경비대(MCA)를 대신하여 해상·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구조를 전담하는 단체(순수 민간단체, 1년 예산 2172억원) **(연구분야)** 구조선을 활용한 해양인명구조와 RNLI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양안전프로그램을 확인하고 RNLI College 에서 선진화된 해양안전교육시설 및 훈련현황을 체험		
교섭창구	(담당자명) Lauren		
	(전화) 01202-308500		
	(e-메일) RNLI_College@rnli.org.uk		
훈 련 소요경비	없음		

3. 요약본

참여자	총경 최정환, 경사 성지은 경사 배대성, 사무관 김선아 주사 정용우, 주사 박지덕	소 속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훈 련 국	영국	훈련기간	2019.10.30.-11.10.
훈련기관	RLSS / MCA / RNLI	보고서매수	31매
훈련구분	부처간협업과정(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보고서제목	**선진국 해양안전교육 시스템 연구 및 영상·교재 개발**		
내용요약	○ **(훈련 배경)** - 수상레저 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은 높아지나,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발생 시 나와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체계적인 해양안전교육의 부재 - 해양안전 사고 시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의식 부재와 해양안전 의무교육 미존재로 인한 사망률 증가 - 선진국의 경우 생존수영 등 유치원 시기부터 체계적인 해양안전교육으로 해양사고율 감소 및 사고 시 생존 확률 증가 - 이로써, 해양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의무교육중인 영국의 사례 연구 및 한국형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대두 ○ **(훈련의 목적)** - 2020년부터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양안전교육이 선택에서 필수로 변경예정으로 어린이 해양안전교육 시스템 구축 필요 -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 해양안전교육 사례 연구를 통한 즉시 적용 가능한 체험형·실질적 교육시스템 개발 필요 - 이에 따라, 선진국의 해양안전관련 주요기관 방문·견학을 통한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체험하고, 관련 부처들 간의 협업을 통한 공동의 한국형 해양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함.		

내용요약	○ **(훈련 주요내용)** - 선진국 해양안전교육 자료 및 영상 등 교육콘텐츠 현황 분석 - 선진국 해양안전교육홍보 콘텐츠 제작방법 및 활용사례 연구 - 선진국 해양안전교육홍보 콘텐츠 교육 인력 및 교육체계 - 선진국 해양안전교육의 성과 및 효과 사례 - 선진국 해양안전교육 실습교육과 이론교육 체계 - 선진국의 전반적인 해양안전교육 집행절차 벤치마킹 ○ **(정책 제언)** -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캠페인 진행 -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선제적으로 수반 - 통일된 교육과정과 교재 제작 - 전문 해양안전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 마련 - 법령 개정을 통한 아동교육의 해양안전교육 의무화 지정 추진

Ⅱ. 본론

1. 훈련의 배경과 목적

1. 훈련의 배경

○ 수상레저 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은 높아지나,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발생 시 나와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체계적인 해양안전교육의 부재**

○ 해양안전 사고 시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의식 부재와 해양안전 의무교육 미존재로 인한 사망률 증가

○ 선진국의 경우 생존수영 등 유치원 시기부터 체계적인 해양안전교육으로 해양사고율 감소 및 사고 시 생존 확률 증가

○ 이로써, 해양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의무교육중인 영국의 사례 연구 및 **한국형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 대두**

2. 훈련의 목적

○ 2020년부터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양안전교육이 선택에서 필수로 변경예정으로 **어린이 해양안전교육 시스템 구축 필요**

○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 해양안전교육 사례 연구를 통한 즉시 적용 가능한 **체험형·실질적 교육시스템 개발 필요**

○ 이에 따라, 선진국의 해양안전관련 주요기관 방문·견학을 통한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체험하고, 관련 부처들 간의 협업을 통한 **공동의 한국형 해양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함.**

3. 훈련의 필요성

○ **연평균 123명의 연안 사망사고 발생, 안전수칙 미준수가 76% 차지**

- 바다는 육지의 호수.계곡과 달리, 밀물.썰물, 조류, 갯골, 이안류 등의 많은 위험요소로 해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매우 높음
- 국민들의 해양안전지식 부족으로 해수욕장, 갯벌 등지에서 연 평균 123명의 사망사고 발생, 사망원인의 76%가 안전수칙 미준수

> ▸ **연안 안전사고 인명피해 : 연평균 123여명 발생**
> ※ 사고 통계 : 2016년 130명 → 2017년 115명 → 2018년 124명
> ▸ **사고 유형 : 익수, 실족, 갯벌고립, 갯바위 사고**

○ **유아 및 학생 대상 '해양안전교육'을 선택이 아닌 필수교육으로 전환**

- 어린이집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교육 선택교육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다만, 화재, 교통안전 교육 등에 대해서는 필수 교육으로 운영 중
-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협업해『아동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 해양안전교육의 필수교육화 추진

○ **다만, 해양안전교육 영상 등 콘텐츠 부재로 양질의 교육추진 한계**

- 2020년부터 전국의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양안전교육에 활용 할 해양안전 교육자료(콘텐츠) 부재
- 한편, 해양안전교육 콘텐츠들은 질적·양적 차원에서 매우 부실한 상태로, 내년부터 해양안전교육이 의무화 될 경우 전국 선생님들은 교육자료(콘텐츠)가 없어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연령대별 맞춤형 해양안전교육 시스템(영상, 자료) 구축 시급**

- 영국 등 해양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유아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령에 맞는 체계적인 해양안전교육을 추진 중

-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해양안전교육 의무화에 따라, 선진 해양안전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 또는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 적합한 교육 영상 및 콘텐츠 개발하여 보급 시급

4. 훈련의 주요 내용

○ **선진국 해양안전교육 자료 및 영상 등 교육콘텐츠 현황 분석**

- 선진국의 해양안전교육 자료 및 영상교육 운영실태
- 연령대별 맞춤형 안전교육자료의 특성 및 차이점 분석
- 해양안전교육 콘텐츠 및 교육 자료의 활용도
- 영상, 교육자료와 실습교육 비중 및 운영사례

○ **선진국 해양안전교육홍보 콘텐츠 제작방법 및 활용사례 연구**

- 해양안전교육 자료 및 영상자료 제작 기관 및 활용기관, 배부처
- 해양안전교육 자료 및 영상자료 업데이트 주기
- 해양안전교육 자료 및 영상제작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 영상 및 교육자료 제작을 위한 연간 소요예산

○ **선진국 해양안전교육홍보 콘텐츠 교육 인력 및 교육체계**

- 해양안전교육을 위한 전담 교육 인력 운영 방법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 방법
- 해양안전교육홍보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역할분담 사항

○ **선진국 해양안전교육의 성과 및 효과 사례**

- 해양안전교육 홍보의 추진 배경 및 중요성
- 해양안전교육 홍보를 통한 그 간의 투입예산과 효과
- 해양안전교육홍보 주요 성과 분석 사례

○ **선진국 해양안전교육 실습교육과 이론교육 체계**

- 실습교육 방법과 이론교육의 비율
- 해양안전교육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교육체계 및 방법

○ **선진국의 전반적인 해양안전교육 집행절차 벤치마킹**

- 이론과정과 실습과정의 구분 기준과 상호연계 방안 모색
- 기본훈련 커리큘럼 연구 및 교육훈련과정 분석 연구자료 검토 등

2. 왕립 인명구조협회(Royal Life Saving Society)

1. 방문 개요

○ **일자 / 장소: '19. 10. 31.(목) ~ 11. 6.(수) / RLSS HQ 및 지역 스포츠센터**

○ **참 석 자: Aaron(Non Vocational Awards Manager), Michael Dunn(Business Services), Nick Grazier(Qualification Development Manager), Andrea Roberts (Engagement Manager), Elouise Greenwood(Participation Manager)**

○ **주요 내용: 영국의 해양안전교육 실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2. 발표 내용

○ **Aaron(Non Vocational Awards Manager)**

- 영국은 해양사고 사망률을 줄이고자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부모에게 1시간의 무료 익수사고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영국에는 RLSS에서 진행하는 Rookie Life Guard 프로그램이 존재. 이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하는 인명구조요원 양성교육으로 성인 인명구조요원의 기초과정이며 어렸을 때부터 인명구조교육을 시켜 준비된 인명구조요원을 양성하는데 기본이 됨.

- Rookie Life Guard 프로그램은 어린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고, 이 교육을 이수하면 Medalian 과정을 들어가게 됨. Medalian 과정은 크게 Gold, Silver, Bronze 과정으로 나뉘며 Bronze과정부터 순차적으로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음.
- 또한, Medalian의 교육 종류는 Pool(수영장), Open Water(강가), Beach (해변)으로 구분되며 이는 법령상 학교*에서 시행해야하는 의무교육이지만 학교마다 예산 등의 사정에 따라 시행중에 있음.
- 의무교육이지만 미실시하는 학교에 대한 처벌규정 미존재로 미실시 학교가 존재. 정부에서는 수영교육을 권고(법률)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더 많은 실정.

  * 학교는 크게 3가지로 공립(State), 사립(Private), 자율(Academy)로 나뉘고 특히, 수영장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공립학교에서는 실시율이 저조함.

○ **Michael Dunn(Business Services)**

- RLSS는 순수 자선단체 임. 따라서 국가 보조금 지원이 없음. RLSS 본부는 자원봉사 및 유료 강사들의 자격역량 감독 등의 임무를 수행. 본인은 Business Manager로써 해양안전관련 기관들의 모임인 National Water Safety Forum 광고, 자원봉사자, 캠페인 등 업무를 진행 중.
- 라이프가드 자격증 발급비가 이 단체의 주요 운영비. 1인 자격증 발급비용 (National Pool Life Guard Certification) 56파운드 정도. 수영장에서 RLSS로 입금하고 수영장에서는 한사람당 250~300파운드 정도 별도로 청구.
- RLSS HQ에서는 매뉴얼과 자격증을 만들어 수영장에 제공하고 수영장은 교육 시키게 됨. 수영장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교육을 계속 하려하고 교육 수료인원이 매년 4천명 정도, 누적 100만명에 달함.
- 강사는 RLSS에서 인증받은 강사만 교육 가능함.
- 법적으로는 구조원이 꼭 있어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위기관리 측면에서 고용하는 것. 수영장 수심이 낮고 위험성이 적다면 수영강사가 인명구조 역할까지 하게 함. 그렇게 되면 비용이 낮아지므로 아이들의 수영장 이용 요금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많은 아이들이 수영장을 이용하게 됨.

하지만,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입장에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했는지의 여부를 인명구조요원 배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됨.

- 어린이 대상 해양안전교육은 크게 두가지로, 자원봉사로 구성된 것과 수영장에 의해 고용된 강사로 구성되는 곳이 있음.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는 곳은 RLSS에 등록비 인당 1.8파운드만 냄. 자격증 발급 비용은 인당 15파운드. 매주 일정금액을 내서 비용을 충당하는 클럽도 있고 필요 시 한 번에 내는 클럽도 있음.
- RLSS SHOP에서 매뉴얼과 구조용품 등을 판매하며 수익을 냄. 매년 학교, SNS, 청소년그룹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하지만 그 외 별도로 장려하는 것은 없음.
-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선생님이 직접 강사가 되거나 RLSS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진행함. 캐널스, RoSPA, RLSS 등 협회에서 공동으로 구성해서 익수방지를 위해 진행하는 것이 Water Safety Forum임. 6~8주마다 진행됨.(실무급), 관리자는 2~3개월 마다 진행. 각 단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체마다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는게 쉽지만은 않음.
- ILS의 권고사항 중 하나가 국가에서는 해양에서의 안전전략을 세우는 것임. 2016년도가 가장 근래에 만들어 진 전략이고, 현재로써는 안맞는 부분이 많아 디테일하게 수정변경 노력중이나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다른 단체에서도 인명구조 매뉴얼을 제공하긴 하나 RLSS에서 95%를 담당하고 핵심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없음. 서핑협회나 구명정 협회에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매뉴얼은 만듦.
- 서핑협회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 참고를 하지만 가져다 쓰지 않음. RNLI는 이런 교육 자체를 진행하지 않아 상관없음. 국가 차원의 정책은 지역에는 맞지 않을 수 있으나 지역별로 익수사고가 많은 지역에선 RLSS에 자문 문의를 함. 그렇게 쌓인 방법들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Water Safety Forum의 각 기관에서 맡은 DB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음. Microsoft의 powerBI를 통해 각 기관은 DB관리를 하고 매년 데이터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음. 세부적인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와야 제공하고 있음.

○ **Nick Grazier(Qualification Development Manager)**

(문)	구조물품은 RLSS에서만 제작, 판매하는지?
(답)	대부분 RLSS에서 특허를 갖고 있어 독점하고 나머지는 다른업체도 제작함.
(문)	제품 인증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답)	국가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음.
(문)	왜 수영장, 해안가 등 자격을 다르게 만들었는지?
(답)	수영장 인명구조 자격증 제공하는 곳은 3곳인데 RLSS가 95%를 차지하고 있음. 호수는 open water, 해안가는 beach program, 수영장은 pool로 구분 수영장은 가이드라인이 많이 들어가 있고, 호수 같은 경우는 요즘 증가추세이나 법적인 제도가 미비함. 그래서 RLSS에서 처음으로 호수에서의 특성화된 라이프가드를 만듦. 수영장 자격증은 이수시간이 36시간, 자격마다 다름. 기존 자격증 보유자가 다른 자격증 보유 원할 시 중첩되는 교육은 제외하고 나머지 교육 후 취득 가능. 수영장 인명구조는 역사가 30년 정도돼서 누적인원도 많고 쉽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고 그 다음이 beach 라이프가드가 지원자가 많음. 호수 라이프가드는 2017년도에 생겼고 작년에 600명 정도가 취득했음. 자격증 발급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그 강사는 본국에서 RLSS 라이프가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음. 그 강사는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온라인으로 진행) RLSS 본부의 점검사가 해외를 돌며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캠페인 부분도 담당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캠페인) (Drowning Prevention Week;DPW, 익수예방홍보주간)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야하는데 위험성을 알리고 왜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시작되었다.
- 연간 약 4백명 정도가 익수로 사망하게 되는데 그 수를 줄이고자 함.

- 국가적 차원에서 물가에서의 안전 등을 홍보하는데 RLSS의 역사가 100년정도 되고 회원의 수를 볼 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 전 연령에 교육하는건 어렵기 때문에 효과가 좋고 장기간 안전확보가 가능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음.
- 익수방지주간 홍보를 위해 고용된 전문인력이 있음.
- 무조건 안된다. 하지마라. 의 교육이 아니라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교육하기 시작했다.
- 첫 케이스가 제이든의 가족 사례인데 이런 사례를 들며 사실적인 교육을 하고 있음.
- 사고를 당한 가족들이 먼저 협회를 찾아와 타인과 공유하고 교육·홍보에 반영되길 바라고 있음
- 익수로 인해 가족을 잃은 가족이 직접 학교나 교육기관을 찾아 강의를 하면서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됨. 가족을 잃은 슬픔을 타인의 안전을 위해 얘기하며 본인의 상처를 치유하게 됨.
- 캠페인의 방법은, 지역 클럽에 전달하고 홍보될 수 있도록 함. 익수가 발생한 지자체 공무원에게도 홍보를 부탁. 학교를 방문하기도 함. RLSS 파트너들에게도 전달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
- 작년기준 2백만이 오프라인으로 캠페인에 참여하였음. 639개 학교가 참여. 온라인으로 233만명 총 1천7백만명 정도 됨.
- 최고의 성과가 모든 매체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게되니 전달력과 영향력이 굉장히 높았다.
- 6월의 2번째주가 되는데 그 이유가 여름휴가와 방학 전 이기 때문.
-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캠페인 이후 자선단체임을 알리게 되었고 국민의 인식이 전환됨에 따라 더 많은 자원봉사와 지원이 생김.
- 첫 해에 3천 파운드를 예산으로 책정하였는데 자선모금 부분을 없애버리니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해졌다.

- 5년간 음주 후 익수자가 448명, 이에 따른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게 됨.
- 2014년도 학생 익수사고가 있었는데 어느 협회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아 RLSS가 시작하게 됨.
- 가장 처음 시작하게 된 가족이 Megan Roberts 가족임. 친구와 여행 중 실종되어서 2-3주 후 발견되었는데 익사 후 발견됨.
- 그 후 다른가족(Ross Irwin)도 협회를 찾아와 같이 캠페인을 벌이게 됨.
- 주로 절제력이 약한 젊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됨.
- 연령, 성별 특성화 된 캠페인을 위해 9월즈음, 신입생이 들어올 때.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에 함.
-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력이 필요한데 주로 대학교에서 지원을 함.

○ **Andrea Roberts(Engagement Manager)**

- 지역 커뮤니티를 관장하고 있음. 8,870명의 멤버, 365개 클럽, 이 클럽들은 46개의 지사를 운영 중. 지사는 지역마다 있음. 2014년도 4명이 시작, 지역에서 익수방지 팀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발전하게 됨.
- 가장 어린 멤버들이 루키이며 루키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주게되면 가족들까지 참여하게 됨. 지역 코디네이터들은 훈련, 라이브세이빙, 커뮤니티를 직접 관장함. 커뮤니티가 구성되려면 최소 3명이 구성돼야 함. 스카우트, RNLI, RLSS 등 사람을 공유하고 협력한다는게 중요함. 교육은 학교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오프라인, 현장에서의 교육을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진행 중.

○ **Elouise Greenwood(Participation Manager)**

- 자원봉사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시스템으로 포인트제를 도입, 연간 최상위 3명에 대해 표식을 제공해서 자부심 및 자원봉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음.
- 실제 이 제도는 효과가 크고 매년 클럽마다의 경쟁이 되어 더욱 많은 자원봉사를 해 지역 클럽을 홍보하고 유명한 클럽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함.

○ **James**

- RLSS의 활동에 대한 홍보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을 위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함. 구글에 라이프가드 안전관련 검색 시 상단에 표출되도록 함. 이를 위해 새로운 정보, 스토리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단순 인명구조 외 연관검색어들 또한 관리를 실시함. 채널별 콘텐츠 분석을 통한 영향력 높은 아이템을 발굴, 전략적으로 홍보에 활용하고 있음.

3. 소속 교육기관 방문 내용

○ **방문 기관: Vale Farm Sports Centre**

○ **방문 내용**

- 지역 거주 아이들 대상 「Survive and save program」* 및 「Rookie lifeguard program」** 운영 현황 확인

  * 해양에서의 안전수칙 및 사고 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

  ** 성인 인명구조요원이 되길 꿈꾸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전 교육

-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커리큘럼 확인했으며, 한국과의 차이점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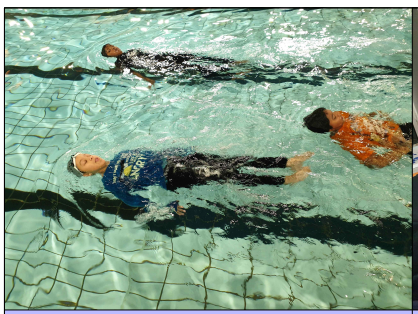
  ① 생존수영 목적에 맞게 교육은 수영복이 아닌 **일상복으로 교육진행**

  ② 각 레벨마다의 **교육 수준과 내용에 차이점**을 둠

  ③ **이론교육을 놀이형식으로 진행**해 거부감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습득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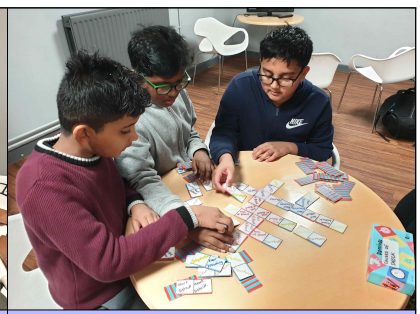
  ④ RLSS HQ에서 제작·배포하는 커리큘럼과 교재를 통한 **통일된 해양안전교육**

○ **교육 사진**



일상복으로 진행중인 생존교육

놀이방식의 이론교육(1)



놀이방식의 이론교육(2)

○ **방문 기관: Strode swimming pool**

○ **방문 내용**

- 앞서 방문한 Vale Farm Sports Centre와 가장 큰 차이점은 순수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교육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 생존수영 강사들은 전원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놀라웠던 점은 교육만 무료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대상 아이들의 수영장 입장료까지도 강사들의 사비로 지불하고 있다는 점이다.
- 또한, 한국과는 다르게 기초 교육에 그치지 않고 복합상황(2가지 이상), 경추 손상 의심 환자, 합동으로 인명구조 방법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행동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이러한 교육은 단발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진행해 학습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이론보다는 실제 상황처리 교육 위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음.
-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무료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생과 학부모는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강사들 또한 자부심으로 계속해서 발전된 교육을 시켜주려 노력하고 있음.

○ **교육 사진**

복합사고(2가지) 대응능력	경추손상 의심환자 조치	합동 인명구조 교육

3. 기타 참고기관

○ **방문 기관: Life Skills(Bristol)**

○ **방문 내용**

Andy Townsend(General man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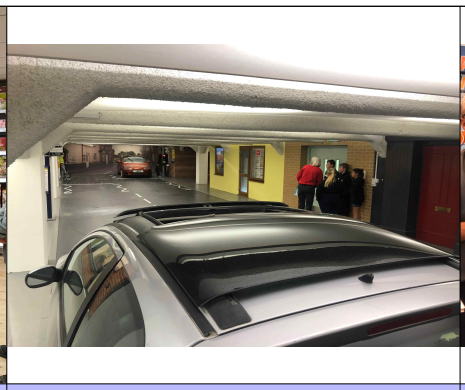
- Life Skills는 아이들의 연령대에 맞춰 필요한 안전교육을 이론이 아닌 실제 상황을 구현하여 몸으로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 교육을 시킨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 Life Skills는 자선단체이며, 전국적 14개 센터가 운영. 50%는 정부나 소방, 경찰쪽에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순수 자선단체.
- 단체장들은 일년에 두 번정도 미팅을 갖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 본인이 그 모임의 장을 맡고 있으며 RoSPA(왕립 재해예방협회)와도 관계가 있다.
- 브리스톨(Bristol) 센터는 전국에서 3번째 센터이다.
- lifeskills는 10-11살까지가 주 교육대상이며, 학교와 생활방식이 바뀜에 따라 여러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므로 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1년 일찍(9-10살) 교육을 시작하는거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그 나이 때에는 체력과 주의력이 낮아 교육 효과가 낮다.
- 실내 교육장소에선 TV가 없고 모든건 몸으로 겪고 체험하며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 화재관련해서는 릴선 합선, 핸드폰 밤새 충전해서 화재, 요리 중 화재, 전자담배로 인한 화재, 화재감지기가 알람 시 행동 요령(연기, 불 등에 대한 탈출과 신고요령, 신고 후 신고 통화방법)등을 교육
- 집에 수상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 방 정리 안했을 때 위험한 물건 등(바닥 등),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일산화탄소 등), 태양에 의한 화상, 바비큐 화상, 트램펄린 사용 중 부상, 스케이트보드나 스쿠터 탑승 중 부상 등 일상생활에서의 안전교육
- 선로안전, 해양안전 관련 교육도 있으며, 해양안전 관련해서는 작년에 RLSS에서 자료를 받았고 좋은 자료라 교육에 반영하였다.
- 건축물 근처에서의, 전기선 안전, 어두운 골목길에서의 반응(심장박동이 빨라짐 등)후 공격을 받았을 때 행동요령 등 도 교육에 포함.

- 감기와 기침에 대한 의사 처방, 약사에게 살 수 있는 약물, 불법적인 약물, 합법적인 약물, 모든 약물에 대한 작용과 반응, 약물마다의 영향, 내 몸의 반응 등.

(문)	왜 학교에서 하지 않고 자선단체인 lifeskills에서 진행하는지?
(답)	학교는 예산 및 체험시설이 부족하다.
(문)	체험비용은?
(답)	한 사람당 8파운드의 체험비용이 든다.
(문)	lifeskills가 의무교육인지?
(답)	그동안 학교의 주교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각 학교마다 보조과목에는 포함되어 있었다. 성교육, 건강, 안전교육 등. 얼마 전 lifeskills가 주교육에 포함되었다. PSHE(Personal Safety Help Education)
(문)	RoSPA의 LASER 프로그램과는 다른것인지?
(답)	RoSPA는 영국 내 안전에 관한 전체를 관장하고 LASER는 lifeskills가 셋팅했으나 국가 지원이 끊기면서 중단되었고 lifeskills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문)	여기서는 교육해야 되는 파트가 정해져 있는지?
(답)	도로안전(과속, 반사옷, 우천 시 제동거리, 안전벨트 메기, 자전거 관련 등)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 유통기한 확인 방법, 음식에 대한 성분, 영수증을 받고 확인하기, 미성년자 구매불가 상품(술,담배 등),

○ 교육 사진

응급신고 등 안전 교육장



도로교통안전 교육장

해안가 안전 교육장

3. 영국 해안경비대(Maritime&Coastguard Agency)

1. 방문 개요

○ **일자 / 장소: '19. 11. 7.(목) / MCA HQ**

○ **참 석 자: Gemma May(RNLI International Advocacy Manager), Kirsten Pointer(MCA;익수방지 관련 업무 담당), Rob Priestley(MCA;국제협력), George Rawlinson(RNLI operation director; 구명정, 구조요원, 수색구조 등 전반을 관장)**

○ **주요 내용: 영국 및 세계적인 어린이 해양안전사고의 현황과 범세계적 대응방안, 영국 해안경비대의 업무**

2. 회의 내용

○ **MCA, RNLI, Water Safety Forum 기관이 모두 MCA에 모여 회의를 진행.**

○ **Gemma May(RNLI International Advocacy Manager)**

- 본인은 RNLI에서 국제적 익수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국제적 문제인 어린이 익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방문해 준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표함. 이를 계기로 한국과 영국이 어린이 해양안전(익수)에 대해 협력과 해결책을 마련하면 좋겠음.
- 매년 전세계에서 익수로 인해 320,000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음. 이는 홍수 등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은 포함하지 않아 실제 사망자는 더욱 크다고 봄.
- 사망의 90%이상이 개발도상국에서 발생되고 있음.
- 지리학적으로 보면 서부 태평양지역에서 5~14세 익수가 가장 많다.
- 90초에 한명씩 아이들이 익수로 사망하고 있음.
- 해양을 교통수단으로 바다를 이용하는 나라는 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크다.

- 집안에서의 사고, 재난, 안전부재(관리자X 통학길 등), 생계를 위함 등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
- 저개발국가, 소득이 적은 방글라대시의 경우 매년 18,000명의 학생이 익수로 사망하고 있다.
- 익수는 교육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수영을 가르치는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함.
- 5세 이하의 아이들이 익수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 20~30불 정도로 수영교육을 시키면 적어도 85%정도의 사고 발생율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 인명구조요원 및 자원봉사자 그리고 재난대응 인원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응급구조사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제도적, 국가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할 예정.
- 첫 데이터 이후 3년 뒤 WHO 발행 책자에는 10개의 단계가 제시되어 있음.
- 국가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등 대응을 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 교육적, 제도적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 프랑스의 경우 수영장 근처에 울타리를 세워 익수사고가 줄어든 것을 보면 이러한 정책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세계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협력하고 있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최근 10년간 4백만명이 익수로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 왜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았냐면 심각성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고, 이 설명에 대해 본인이 UN에 직접 가서 설명할 예정임.
- 이에 UN의 지원을 받게 되면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함.
- 나의 역할은 이 아젠다가 관심을 갖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는 UN에서 한국의 도움이 많이 필요함.
- 이에 한국도 아동 익수방지를 위한 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가 절실히 요구됨.

○ **Kirsten Pointer(MCA;익수방지 관련 업무 담당)**

- 우리는 국가차원의 세부계획을 수립, 지원하고 있음. 오늘 우리는 3가지 프로젝트에 대해 얘기하겠다.
- 첫 번째는, 카누, 다이빙, 카약 등 전문가를 초빙해 관리하는 방안이다. 미래에는 더 많은 분야에 합류예정.
- 사고 지원방법에 대해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RNLI와 협조 방법에 대해 낚시도 하나의 심각한 안전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해결책이 필요하다.
- 영국은 한국처럼 레저활동 시 신고 의무사항이 없어 이 점은 배울점 인 듯하다.
- 다이빙 하는 인원은 RNLI와 협동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두 번째는, MCA는 3,5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있다.
- 이 자원봉사자들은 시간당 10달러 정도의 교육 참여비를 주고, 90명의 officer만 있고 이들이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한다. 현재 총 240~250명이 근무중이다.
- 낚시꾼이나 레저활동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으면 얼마나 안전하지에 대해 교육을 한다.

○ **Rob Priestley(MCA;국제협력)**

- 낚시꾼이나 레저활동자들에게 영국 해안경비대는 2만5천건의 사건을 담당하는데 6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경찰의 역할이나 출입국의 역할은 하지 않는다.
- MRCC와 ARCC가 있고 하위에 9개의 오퍼레이션 센터가 있다. 그 외 런던코스트가드가 따로 있다. 강을 전담하고 있으며 업무량이 상당하다.
- 관할은 바쁜지역은 좁게, 안바쁜지역은 넓게 주어 일 년의 사고대응 건수는 비슷함.
- 한 station이 훈련하거나 닫게 되면 역할을 인근 station에 넘겨주게 됨.
-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대응하게 된 후에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떠한 기관을 탓하는게 아니라 개선점을 발굴사고 발전방안을 찾게 됨.

- 그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국민성이 누구를 비난 한다기보다 개선점을 발굴하고자 하고, 이런 사고 발생 시 요구조자에 대한 비난이나 금전의 피해가 없는 무상서비스 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뿐이다.
- ARCC에는 10개의 베이스와 22대의 항공기가 있다.
- 코스트가드 항공기지만 국가자산이므로 어디에든 활용 가능하다.
- 닥터헬기 경찰 등. 3년전 까지만 해도 군에서 담당했지만 민간구조는 더 이상 군의 임무가 아니라 해서 민간업체(Bristow)에 넘겼고 일정 비용을 주고 민간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
- 헬기와 인력은 모두 민간업체의 자산이다. 대형사고 발생 시 스테이션의 관할이 조정되며 그 과정은 2분안에 이루어진다.
- 2,636건 중 1,399건(53%)는 내륙의 사고에 대응했다.
- 1824년에 설립, 95%가 자원봉사자. 5,500명 정도의 인명구조요원 보유.
- 해양안전에 관한 광고는 GAA Irish Foot ball 경기장에 약 8만명을 대상으로 광고를 진행 중

○ **George Rawlinson(RNLI operation director;구명정, 구조요원, 수색구조 등 전반을 관장)**

- National Water Safety Forum 의장을 맡고 있음.
- 영국 전반에 대해 얘기하겠음. 영국에서는 생명 구조와 익수방지에 대해 많은 투자를 받고 있음.
- W.H.O 보고서를 보면 국가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나오는데 2016년부터 국가 간의 협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 40개 정도의 기관들이 이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나누기 시작.
- 2년마다 포럼 운영에 대해 보고서를 국가에 제출함.
- 각각의 기관에서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외에도 협력해서 진행하면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한다. 이 전략수립 후 익수사고 발생률이 현저하게 줄었다.

- 하지만, 자살이나 자해는 증가추세이다.
- 사우스햄튼은 큰 도시이지만 작은 단위의 도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인지를 하고 대응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Water Safety Forum는 몇 개 기관이? 언제부터? 어떤 일을?

: 2002년도부터 시작되어 8개의 대표적인 기관이 시작. 해양안전의식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정부 자금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종합적인 집합체가 만들어졌다.

○ **관련 사진**

발표중인 MCA 관계자

관계기관 협의

해양안전 관계기관 소개

4. 왕립 인명구조선협회 대학 (Royal National Lifeboat Institution College)

1. 방문 개요

○ **일자 / 장소: '19. 11. 8.(금) / RNLI COLLEGE**

○ **참 석 자: RNLI TOUR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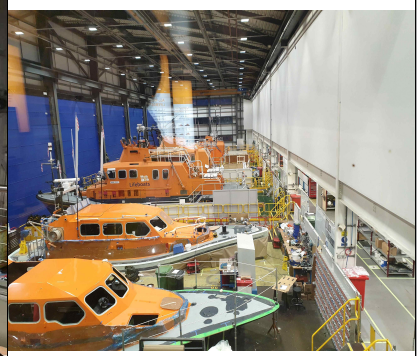
○ **주요 내용: 영국 해양구조의 주축을 맡고 있는 RNLI의 교육기관인 COLLEGE를 방문해 해양안전 전반에 대한 논의 및 기관소개**

2. 투어 내용

○ RNLI COLLEGE 시설 전반 및 설명

- RNLI 협회는 MCA와 함께 해양인명구조를 관장하고 있으며 약 4,000명의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 이 인원들은 RLSS의 lifeguard 프로그램 이수 및 자격증을 획득한 인원들이며 그 자격을 갖춘 인원들을 대상으로 RNLI COLLEGE에서 추가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배치를 시키고 있다.
- 교육 내용으로는, 구조정 운항에 관련된 교육, 인명구조 방법에 관한 교육, MCA와 업무협력에 관한 교육 등 해양인명구조 관련 전반에 관한 특성화 교육을 약 일주일간(과정마다 상이) 합숙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
- 앞서 얘기했듯 RNLI는 자선단체 이므로 주로 기부금이나 물품 판매로 인한 수익으로 단체를 운용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구조정을 해외에 판매하기도 함. (실제 우리가 한국으로의 납품 여부도 문의하였으나 본인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지만 이미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물량과 영국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이 많아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함.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구조정 제작 기술을 RNLI로부터 배워가 캐나다에서 직접 license를 활용한 자체제작을 하고 있다고 함)
- RNLI 구조대원들은 어렸을 때부터 인명구조교육을 받아온 인원들이고 해양인명구조를 위한 특성화 교육을 RNLI COLLEGE에서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인명을 구조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음.

○ **관련 사진**

		
RNLI COLLEGE 교육내용 소개	교육 장비 소개	자체 구조정 제작 공장

Ⅲ. 결론

1. 다양한 관점에서 본 한국의 해양안전교육 현황

1. 인식의 측면

○ 영국의 경우 일찍이 어린이들의 해양에서의 사고위험성과 생존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해양안전교육을 준비·시행중에 있으며 체계가 잡혀 있는 상태.

○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야 해양안전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직 국민적 인식과 제도의 뒷받침이 미비함.

○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비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교육의 효과적인 측면이나 연속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으며, 법으로 제정하여 어린이 의무교육에 해양안전교육을 포함해야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것임.

2. 문화적 측면

○ 영국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와 같이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나눔의 문화가 사회적으로 보편화 되어 있어, 많은 자선단체가 존재하며 그러한 자선 단체의 수준은 한국의 것과 많은 차이를 보임.

*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 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다.

○ 이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문화가 아닌 오랜 시간 축적되어온 영국 특유의 문화로 한국에서는 기부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의 실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

○ 따라서, 좋은 정책의 벤치마킹은 반드시 필요하나 환경적 측면의 하나인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선제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 현재로썬 영국의 교육 시스템처럼 순수 자원봉사로 진행되는 해양안전교육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양경찰이나 유관기관 및 부속기관에서의 업무로 해양안전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통일된 교육방식과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그 강사들로 진행되는 해양안전교육이 진행돼야 함.

3. 환경적 측면

○ 우리나라는 아직 어린이 대상 해양안전교육의 의무화가 제도적으로 미비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 시 해양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긴 하나 사고에 의한 사망 등 피해에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것이 사실.

○ 이에,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어린 시절부터 해양안전교육을 의무화 하여 일생에서의 해양안전관련 사고로 인한 희생을 줄일 필요가 있음.

○ 현재 해양경찰청 대변인실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보건복지부 소관법령인 「아동복지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동교육에 해양안전교육을 의무화로 지정하려 추진 중이다. 아래 참조.

「아동복지법」 현황 및 개정안 내용

○ 아동복지법에 따라 매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성폭력·실종·감염병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 중이나 해양안전교육은 정규 프로그램으로 반영 안 됨

아동복지법 제31조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아동복지법 시행령 28조 1항 교육기준(제28조제1항 관련)

현 행		추 가 (안)
초등학교취학전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해하기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1. 해양의 특성과 사고 예방법 2. 물과 친숙해지기 및 안전한 행동 알기 3.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 4. 해양사고 발생시 신고법
초등학교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화재 시 대처법 3. 화재 신고 요령 4. 화상 대처법 5. 소화기 사용법 6.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1. 해양의 특성과 사고 예방법 2. 선박탈출 및 연안사고(차량추락, 방파제) 대응법 3.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 4. 해양사고 발생시 신고법 5. 해일, 이안류 등 해양사고 대처법 6. 맨몸다이빙 및 생존수영법
중·고등학교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화재 시 대처법 3. 소방기구 사용법 4. 자연재난, 인적 재난 발생 시 행동방법 5. 재난안내시스템 활용법	1. 해양의 특성과 사고 예방법 2. 선박탈출 및 연안사고(차량추락, 방파제) 대응법 3.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 4. 해양사고 발생시 신고법 5. 해일, 이안류 등 해양사고 대처법 6. 맨몸다이빙 및 생존수영법

2. 한국형 해양안전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한 준비

1. 인식 및 문화적 측면

○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캠페인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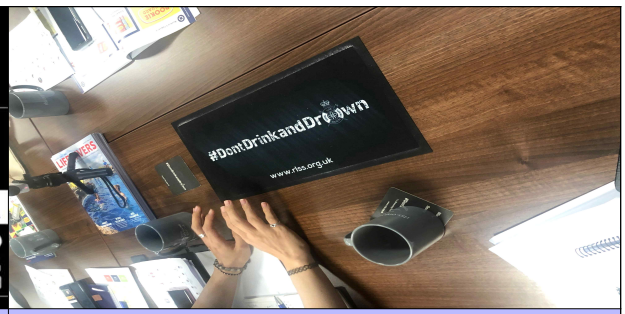
- 우리나라 캠페인의 인식은 단순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는데서 그치고 있지만, 이런 단발성 행사를 캠페인으로 보기보다는 지속적인 노출과 홍보로 시나브로 녹아들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영국의 경우, 음주로 인한 익수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는 20대 초반임을 감안해 많은 술집(Pub)의 술잔 받침으로 음주 익수사고 방지

내용을 적어 주요 술집에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함.

- 이렇듯 정확하게 캠페인 대상을 분석하고 대상별 맞춤형 캠페인 주제를 설정, 캠페인을 진행해야 더욱 효율적이며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영국의 익수예방홍보주간(Drowning Prevention Week;DPW)과 같은 집중홍보기간을 정해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진행하여 효율적인 홍보가 필요함.

음주익수사고 캠페인 문안



캠페인 문안이 인쇄된 술잔 받침

2. 환경적 측면

○ 통일된 교육과정과 교재 제작

- 현재 생존수영의 경우, 해양경찰 각 경찰서에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에 한정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사단법인 생존수영협회 등 민간에서도 진행하고 있어 각 기관마다는 물론, 해양경찰 내 각 경찰서 마저도 다른 교육 커리큘럼을 갖고 있어 통일된 교육이 전무
- 이에 따라, 해양경찰이나 사설단체 어디든 생존수영 교육에 관해서는 통일된 교육과 커리큘럼 및 교육교재를 사용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편성과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 중앙부처이며 해양에서의 치안 및 안전을 총괄하는 해양경찰을 주축으로 한 통일된 교육 과정, 커리큘럼 등의 정립이 시급함.

○ 전문 해양안전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 마련

- 영국의 RLSS가 해양안전교육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및 강사 양성 등 총괄을 맡고 이에 영국 해안경비대 등 유관기관이 자문을 하는 시스템처럼 한국도 해양경찰 및 해양안전 유관기관들이 하나의 통일된 기관에서 교육강사를

양성해야 피교육생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통일된 전문교육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서는 강사를 양성하는 강사, 즉 전문요원이 필요하며 이는 시행 초기임을 감안 영국 등 선진국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